

삼포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이행 촉구 결의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.

「삼포레미콘 성수공장 이전에 관한 이행 촉구 결의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,

- 지난 2017년 10월 18일 서울시·성동구·삼포산업·토지주인 현대제철은 4자 합의를 통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삼포레미콘 공장을 이전·철거하는 ‘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포레미콘 공장 이전협약’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
- 삼포레미콘 공장은 오랜 기간 소음·분진·교통 등의 문제로 지역 거주민 생활환경을 악화시켰으며, 2015년 10월 삼포레미콘에서 공장폐수를 중랑천에 무단방류하다 적발되어 공장 퇴출 운동을 촉발한 바 있습니다. 그 후 2017년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들은 협약의 이행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

- 이전협약 이후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자협약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, 3월 26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입안되었고, 5월 19일에는 도시계획시설(공원) 시설결정요청을 성동구에서 서울시로 의뢰하였으며, 10월 30일에는 본 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의 중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.
- 그러나 아직까지 현대제철과 삼포산업간 영업보상 협상과 레미콘 차량 지입차주 보상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이고, 현대제철에 대한 토지보상 방법(토지교환/현금보상) 또한 미결정되어 이전협약의 기한을 고려할 때 원만히 추진될 것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- 따라서 서울시는 이전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대제철·삼포산업과 이전 및 철거에 대해 적극협의를 하고,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성동 삼포레미콘 부지를 주민들의 공간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.

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!

-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